

20세기 이후 여성 모자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유현정* · 김민자**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The Plasticity of Women's Hats Since the 20th Century

Hyun-Jung Ryu* · Min-Ja Kim**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5. 5. 17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plasticity of women's hats in the 20th century. This paper reveals the characteristics of formation through the historical survey of women's hats, which can be used as a basic design data for developing high value added products.

Hats have been worn to play as key roles of various social codes. During the 20th century, functional roles of hats still existed, and the roles of ornaments had been gradually increased, however, the roles with symbolic meanings of regarding social class had been weakened.

The major plasticities of hats can be generally analyzed based on the shape, material, technique, and ornament.

As the time passed by to the end of the 20th century, flat-shape hats have been worn casually in both Western countries and Korea.

Key words: plasticity(조형성), hat(모자), shape(형), material(소재), technic(기술), ornament(장식).

I. 서론

복식은 다양한 형태와 재료로 신체 전 부분을 감싸고 장식하며 기능, 조화, 상징 등의 역할을 해 왔다.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전체적인 조화가 중요시 되면서 액세서리와 단품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특히, 기성복이 일반화 되자 헤어스타일, 모자, 메이크업 등 신체의 자유로운 부분에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증폭되었다.

‘모자’라는 액세서리는 역사 이래 기본형을 유지하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특히 르네상스 시기인 16세기부터 스케일, 비례, 장식 등의 변화가 다양해졌다. 모자는 수세기 동안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과 개성을 상승시켜온 아이템이었다.¹⁾

또한 머리카락, 손 등의 신체 가장자리의 변화는 신체 중심부의 변화 보다 큰 시각적 무게로 시선을 유도하며, 신체의 가장 위에 위치하며 머리를 피복하는 모자 아이템은 복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20세기 동안 여성 모자는 계급상징의 역할로 외출 시 필수 아이템 역할을 하고, 토탈 패션의 유기적인 통일감과 전체 이미지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후반기로 갈수록 젊은이들에게는 패션을 완성하는 표현적인 아이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행선도 집단에서는 의상보다 한 차원 높은 예술성을 시도하는 등 의미와 역할에 있어 다양한 재해석이 되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조형의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모자는 수요의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구나 트렌드 중심의 선행연구들로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디자인의 기초가 되는 조형성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서양과 우리나라의 조형성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의 범위는 개성 있는 모자의 조형이 가장 활발해지는 20세기 초부터 최근의 경향을 알 수 있는 2005년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정하고,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등장했던 여성모자로 제한하였다. 서

양의 경우는 데이 드레스(day dress)와 함께 착용한 모자만으로 한정하였으며, 모자는 크라운(crown)과 브림(brim) 중 최소 한 부분이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변형된 형태라 할지라도 크라운의 최소 피복면적은 착용자 얼굴 면적의 1/4이상으로 정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20세기 초부터 1990년 이전은 주로 학술논문, 의상과 미술의 관련서적, 백과사전, 복식사 관련서적 등의 문헌연구로 이루어 졌다. 최근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사례연구로 진행하였고, 그 자료로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자료만을 선정하였다. 서양의 모자의 유행경향과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해 하이패션(High Fashion)의 선도자 그룹으로 Collezioni, Collection 등의 패션관련 잡지와 인터넷에서 1369점, 국내는 서울패션아티스트 협회(SFAA), 중앙디자인그룹(JDG), 뉴웨이브인 서울(NWS) 등의 쇼에 관한 패션잡지와 인터넷에서 총 237점을 선정하였다. 일반적인 모자의 조형성을 파악하기 위한 대중적인 그룹은 미국판 보그와 한국판 보그, 패션 광고, 신문과 잡지에서 117점과 152점을 선정하여 사례연구의 총 자료 수는 1875점이 선정되었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모자의 조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추출하고, 그 기준으로 서양과 우리나라 모자의 조형성을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이후 서양과 한국의 여성 모자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서양과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모자의 조형성을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 모자 디자인 연구의 형과 소재에 대한 조형성의 기초 자료가 되고 미래의 모자 디자인 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20세기 이후 여성 모자의 이론적 배경

1, 모자의 일반적 개념

1) 모자의 일반적 개념

모자는 머리를 덮는 현대식 쓰개를 통틀어 이르

는 총칭²⁾으로서 영어로는 "햇(Hat)"³⁾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마 위 정수리 부분을 피복하는 부분을 크라운이라하며, 모자 밑면과 가장자리를 따라가는 챙 부분을 브림이라 한다.(그림 1)

모자 조형의 구분을 크게 브림의 유무에 따라 브림이 반드시 있는 햇과 브림이 없는 캡으로 구분⁴⁾한다. 일반적으로 광의의 햇은 모자의 크라운과 브림의 모든 변화 형태를 포함하는 용어인 반면 브림이 없는 형태를 캡(Cap)이라 지칭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브림이 모자의 머리 둘레 주위를 따라 전체에 달려있는 것을 '햇'이라고, 전면에만 달려있는 것을 '캡⁵⁾'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햇은 캡을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⁶⁾

2)모자의 기능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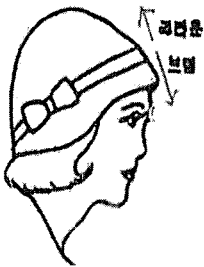
의복과 마찬가지로 모자의 시초도 추위나 더위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 추구에서 출발하였으나 다양한 문화와 사회 분화로 사회적 지위, 부, 종교, 정치성, 직업 등을 상징하는 도구이자 기호의 역할을 해왔다.

사적고찰에 비추어 볼 때 모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실용기능성, 계급상징성, 장식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실용기능성은 역사 이래부터 현재까지 머리와 얼굴에 대한 자연환경의 적응 방법으로써 방한과 차광이라는 기본적인 기능을 말한다. 20세기 후반기에

는 기능주의와 젊은이들의 패션이 유행을 선도하면서 모자는 값비싸고, 보관과 관리에 불편한 아이템으로 치부되면서 단지 실용기능성의 용도로만 착용되었다. 20세기 말 이후 모자는 차광과 보온의 기능 외에 자외선 차단이라는 환경적인 기능이 절실히 요구 되면서 야외 활동 시 필수품처럼 착용하는 가능성이 추가 되었다. 또한 모자는 20세기 초부터 여성들의 스포츠용으로 착용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애용되며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계급상징성은 사회와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실용적 기능을 초월하여 상징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아이템으로서 특히 왕권을 나타내는 크라운(crown)은 권력과 명예를 상징하며, 종교인들의 모자는 종교사회내의 서열과 권위, 신앙을 나타내고, 일반인들의 모자는 그들의 종교, 직업, 계급, 남녀, 문화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사회 기호로서의 계급을 상징하는 역할을 일컫는다. 모자의 조형성이 다양해지기 시작한 서양의 18세기 말부터 상류층들의 모자는 개개인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아이템 이었기에, 복식과 같은 맥락의 의미로서 모자를 쓰지 않고 외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층과 하류층은 거의 모자 착용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일하기에 적합한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며 내구성⁷⁾을 요하는 복식을 착용했기에 노동에 부적합한 모자, 장갑, 우산 등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이르자



(그림 1)
모자의 세부 명칭,
클로셰) <style of
fashion>, p. 81.



(그림 2)
<20세기 패션>,
p. 25.



(그림 3)
<Decades of Beauty>,
p. 54.



(그림 4)
<현대패션과 액세서리
디자인>,
p. 69.



(그림 5)
<세계패션사 2>,
p. 205.

상위 층의 복식을 모방하는 현상이 지난 어느 시기 보다 속도를 더했지만 장신구의 모방은 더디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신구의 품목 하나가 드레스 한 벌 가격에 버금갔기 때문에 하류층이 상류층의 모방을 저해하는 계급상징의 도구로써 빈번히 이용되었다.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직업에 따른 복장마다의 고유한 모자를 착용했고, 페미니스트들이 제시한 대체 여성 복식에 남성복의 아이템을 하나씩 착용하면서 남성모를 여성들이 착용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여성들의 남성모 착용은 20세기에 직업을 상징하기도하고, 상류여성들의 스포츠용으로 착용되어 의미의 변화는 있었지만, 20세기 전반기까지의 모자는 여전히 계급상징성의 역할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장식성은 자신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자하는 장식의 욕구가 모자에 과다하게 표현되어 다양한 조형으로 전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기성복에 의해 획일화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자신만의 독특한 욕구를 표현하려는 패션의 다양화 추세는 패션 소품에 관심이 기울여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이후 모자는 20세기 초 계급상징성의 주요한 의미에서 표현적인 장식성으로 기능과 역할이 전이됨과 동시에 다양한 조형성으로 전개되어 다시금 사랑받는 아이템이 되었다.

20세기 초부터 20세기 말까지의 모자의 기능과 역할은 차광, 보온과 자외선 차단이라는 또 하나의 기능이 첨가되어 실용기능성은 꾸준히 유지되어 왔으며, 20세기 초에서 세기말로 갈수록 계급상징성은 점차 약화, 축소되어갔으나, 개인의 개성 표현인 장식성의 의미는 점차 증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2, 모자의 조형적 특성과 사적고찰

1) 모자의 조형적 특성

모자에 관한 전문서적과 관련자료와 문헌⁸⁾들의 조형성을 보는 시각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모자의 조형성을 크라운과 브림이라는 기본적인 형태⁹⁾로 보며, 이 기본적인 형태의 변화로 독특한 조형성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모자의 형태 유

지를 위한 것으로 형태 및 구성,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 소재와 기술 그리고, 장식으로 조형의 기준을 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형태 및 구성

본고에서 연구자는 모자의 형태를 구성방법과 외관의 형태에 근거하여 입체형, 혼합형, 평면형, 자유형으로 조작적인 명명을 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입체형은 모자의 외관형태가 착용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는 것을 명명한다. 입체형의 모자로는 필박스, 토크, 코삭(cossack), 페즈(fez), 헬멧(helmet), 클로셰,픽쳐햇, 카플린, 카노티에, 카트휠(cart wheel), 머쉬룸(mushroom) 슬라우치, 콜리, 티놀리안, 파나마, 보우터, 자키, 브르통, 카우보이(cowboy), 파나마(panama)등이 있다.

평면형은 착용하지 않을 시는 유연한 형태가 되어 착용시보다 일그러진 형을 이루다가 착용 시 원래의 형태로 착용 가능한 모자로 명명한다. 평면형의 모자로는 만다린, 보닛, 후드, 병거지, 탬(tam:일명 쥘빵모자), 스카프, 머쉬수건 등이 있다.

혼합형은 크라운과 브림의 일부분이 입체형이나 평면형으로 혼합 질충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명명한다. 혼합형의 모자에는 터번, 베레, 스킨 캡, 야구모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의도는 입체형일지라도 유연한 소재나 부자재 사용이나 기술 부족으로 평면형이나 혼합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본래 평면형이나 혼합형의 모자에 속하나 하드한 소재로 제작될 경우 입체형이 되기도 한다. 평면형의 모자라도 제작 과정 중 소재와 기술 변화에 따라 입체형이나 혼합형으로 전환 될 수 있고, 입체형의 모자 또한 소재와 기술로 혼합형과 평면형으로 전환 될 수 있으며, 이들도 소재와 부자재, 기술에 따라 입체형, 평면형으로 전환 될 수 있다.

자유형은 크라운과 브림이라는 기본모 형태가 과도하게 변형된 것으로서 두상의 형태가 드러나지 않으며, 디자이너의 의지에 의해 조형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명명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조형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대부분의 경우 형태, 소재, 장식 등의 구분이 모호한 형태의 모자가 이에

속한다.

(2) 소재와 기술

모자는 세탁과 마찰에서 자유로워 재료의 폭이 넓어 거의 모든 재료가 가능하지만 특히, 탄력성, 유연성, 강도가 높은 재료가 일반적인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재료는 밀짚과 펠트였다.¹⁰⁾ 모자의 제작시의 구성법과 소재와 기술 등에 의해 외관 형태가 결정되기도 한다. 20세기 이후 대표적인 기술은 니트의 제작 방법으로써, 입체형 일색이었던 서양 모자의 형태를 평면형과 혼합형으로 유도한 주요 요인이었다. 20세기 말부터 평면형의 모자가 선호되면서 다양한 섬유소재로 제작되고 있다. 소재와 기술에 의해 의도적으로 하드(hard)하게 제작된 형태가 입체형이라면, 평면형은 의도적인 소프트(soft)한 형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소재에 한정되지 않고, 패브릭(fabric:천) 재단으로만 만들어지는 모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에는 모든 소재가 사용될 만큼 소재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펠트를 주 소재로 만든 모자일 경우 펠트 햇(felt hat)으로 불리거나 보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밀짚이 주 소재일 경우 스트로우 캡(straw cap)으로 사용하고, 니트 기술로 만들어진 모자를 니트 모자(Kint hat)라고 한다.¹¹⁾

(3) 장식

장식은 일상적인 사용품을 목적에 합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형태화해서 대상을 매력적으로 하거나 아름답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

모자의 장식은 크라운과 브림이라는 기본 골격의 부분으로 실용기능성보다 표현적인 기능을 최대

<표 1> 모자의 조형 분류 체계

조형의 기준		모자의 명칭	
형태 및 구성	입체형	필박스, 토크, 코삭, 페즈, 헬멧, 클로쉐, 픽처햇, 카플린, 카노티에, 카트휠, 머쉬룸, 슬라우치, 쿨리, 티놀리안, 파나마, 보우터, 자키, 브르통, 카우보이 등	
	혼합형	베레, 스컬캡 (그림21), 야구모자	
	평면형	터번, 토크, 만다린, 보넷, 후드, 벙거지, 템, 스카프, 손수건, 머릿수건 등	
	자유형	작가의 의지에 의해 조형적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두상이 드러나지 않는 모자로서 대부분이 크라운, 브림, 소재, 장식의 구분이 모호한 예술적인 모자들.	
소재 및 기술	펠트 햇(felt hat), 스트로우 캡(straw cap), 니트 모자(Kint hat), 패브릭으로 재단하여 만든 모자 등		
장식	상징마크와 로고가 있는 모자, 칵테일 햇(cocktail hat) 등		

한 표현한 조형의 한 부분이다.

장식은 장식적인 목적 외에도 볼륨과 규모를 크게 하거나, 신분과 계층을 상징하기 위한 특정한 장식품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특정한 상징 마크나 로고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로는 장식이 풍부한 파티용의 모자를 카테일 햇(cocktail hat)이라고 한다.¹³⁾

모자 조형성의 기본이 되는 형태 및 구성, 소재와 기술, 장식의 기준으로 모자의 조형 분류체계를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2) 모자의 사적 고찰

(1) 서양 모자의 사적고찰

18세기 후반부터 여성의 헤어스타일에 볼륨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화려한 로브와 함께 모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형성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모자의 조형성 변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20세기 초기에는 S커브 드레스에는 폼파두르(pompadour)라는 부푼 헤어스타일과 메리위도(Merry Widow) 또는 루실(Lucile 그림2)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장식이 있는 모자가 선풍적으로 유행하였다. 당시 여성들은 커다란 모자를 항상 착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습에서 모자가 차광 기능이 아닌 의례적 용도로 착용되었음 짐작케 한다. 1900년대는 초반의 작은 모자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부피를 더해갔다.

1800년대 중반부터 남녀평등을 원했던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들의 모자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이 19세기 초에는 여성이 자전거, 승마 등의 스포츠를 할 때 보owler(bowler), 페드라(fedora), 자키 캡(jockey caps) 등의 남성모를 착용하는 것으로 일상화되었다. 특히 보우터(boater 그림 13)는 타이와 슈트 재킷과 함께 짧은 직업여성의 독립성을 표현하였으며¹⁴⁾ 상류층 여성들이 자전거를 탈 때도 크라운이 납작한 보우터를 착용하였다.

당시 모자의 부피가 사회적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였기에 크라운과 브림 자체가 거대했을 뿐 아니라 장식까지 지나쳐 1910년에는 그 부피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이유로 모자에 대한 투

자는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어느 시대보다 거대하고 정교하도록 깃털, 모피, 조화, 리본, 베일 등의 장식 유행은 거의 모든 모자에 적용되었다. 1910년까지 대부분 모자들은 거대했지만, 파리에서 성행한 깃털 장식이 있는 터번(그림 3)은 규모면에서 예외적이었다.¹⁵⁾

1910년대 모자는 이전 시기의 거대함에서 브림과 크라운 모두를 축소시켜 머리의 둥근형만을 강조한 토크(toque), 터번(turban)등 이 유행했다. 1차 대전 중 모자의 브림이 계속 축소되어 거의 크라운만 남아 장식이 거의 없는 필박스(pillbox 사진6), 베레(beret) 형태로 이어졌다. 장식으로는 엠블럼, 진주, 깃털, 꽃 등이 약화되어 사용되었다. 전후에는 짧은 퍼머 머리에 단순한 클로셰(cloche 그림 1)가 사랑받았다.

20년대는 짧고 단정한 머리모양과 가르손느 룩과 샤넬 슈트가 유행했고, 모자는 브림을 접거나 말아 올려 더욱 축소되었으며, 크라운을 실제 머리둘레보다 부풀린 상태로 착용하였다. 둥근 크라운을 가진 클로셰는 이 시기부터 노소를 막론하고 현재까지 계속 수요가 있는 기본 모(帽)가 되었고, 해변에서는 픽처 햇(picture hat)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1930년대는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키야파렐리(Elsa Schiaparelli)는 기존 모자 모양을 변형시켜 과장, 왜곡, 혹은 제거로 구두 모양의 슈 햇(shoe-hat 그림 4), 양고기모자, 잉크병 모자 등을 발표해 기존 모자 형태의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디자인 발상으로 조형성이 강조된 모자를 선보여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¹⁶⁾. 퍼머넌트 덕분에 헤어스타일은 볼륨감을 얻으면서 더욱 짧고 단정해졌으며, 모자는 20년대와 대비를 이루 듯 30년대 초반부터 장식이 증가하였다. 장식으로는 꽃, 깃털, 리본, 여러 겹을 겹친 드레이퍼리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30년대 미국의 영화배우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는 다양한 모자를 영화에서 선보여 모자 유행과 모자 산업을 활성화 시킨 인물로 알려졌다. 30년대 후반부터는 납작했던 크라운이 점차 강조되어 티롤리안(tyrolean)이나 밀짚모자¹⁷⁾ 형처럼 크라운이 높아지고, 브림이 작아졌다. 전쟁 중 여성에게

사치품은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개성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모자였다. 일례로 모자에 깃털 하나에서 새 한 마리를 통째 사용하는 것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 그러나 그 가격이 옷 한 벌에 버금가는 가치였기에 모자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머리카락이 기계에 딸려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면서, 고가의 모자 대용으로 스카프(scarf)를 이용해 다양한 연출을 하였으나 일부 여성들은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기도 했다.¹⁸⁾

그러므로 전쟁은 의례용으로 쓰던 모자의 수요를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패션의 전환기에 자주 등장하는 터번은 스카프와 함께 실용적인 모자로 인식되었지만, 상류층에서는 여전히 모자가 세련된 복장으로 인식되어 중요한 장소에는 입체형인 모자를 반드시 착용하였다. 중 하류층은 모자의 재료 또한 구하기 힘들어 나름대로 독창적인 모자를 위해 천 조각, 헌 스카프, 냅킨, 리본, 짚, 신문지 등 재활용이나 리폼¹⁹⁾으로 스스로의 모자를 만들어 오히려 새롭고 다양한 모자가 많은 시대였다. 프랑스인들은 독일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지나치게 감아올린 터번(그림5)을 착용하여 프랑스 패션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²⁰⁾.

2차대전 중 헤어스타일은 1차대전의 짧은 머리와 대조적으로 긴 머리에 곱슬거리는 스타일이 유행했다.²¹⁾ 그 이유는 짧은 머리의 단정함과 위생성 보다는 모자의 가격이 고가에 이르자 퍼머의 긴 머리로 외모에 변화를 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 후 뉴욕이 전 세계 화두가 되면서 짧고 부

플린 헤어스타일²²⁾ 삼각형태의 콜리(coolle)나 브림이 다소 넓어진 픽처햇을 썼다

여성 모자는 50년대까지 완벽하게 치장된 외관의 필수적인 요소였다.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패션의 등장과 다양한 종류의 모자가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배우 오드리 햅번(Audrey hepburn)이 쓴 지방시(Givenchy) 디자인의 클로셰가 짧은 여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950년대 말 새로운 헤어스타일과 다른 액세서리들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모자는 복식을 완성하는 필수품에서 선택품으로 전락하였다.²³⁾

장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품질의 모자는 상류층의 사치품으로 남게 되었고, 기성모자들이 값싸게 출시되어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자 이 시기부터 밀리너리에 의해 작품성, 예술성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모자와 기계생산에 의한 저렴한 실용성을 추구하는 모자의 두 층으로 나누어 발전하게 되었으며 생산업체도 두 방향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1960년대 이후 모자의 의례용 의미는 약화되었지만, 모자를 포함한 액세서리는 코디네이션 개념의 확산으로 복식의 전체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각종 헤어 제품의 출시는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표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는 더 이상 인기품목에서 제외되었고, 모자 산업은 점차 사양산업이 되어갔다. 이 시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모자가 여러 의상디자이너의 의상과 조화되어 발표되었는데, 특히 예술적 특징을 반영한 팝아트, 옵아트, 기하학적 모자나 여배우들



(그림 6) <현대패션 100년>, p. 222.



(그림 7) <20세기 패션>, p. 216.



(그림 8) <HAT>, p. 181.



(그림 9) <HAT>, p. 20.



(그림 10) www.DaiRees.co.uk

이 영화에서 착용하던 터번, 픽처햇, 베레, 브르통(breton)과 재키 룩의 필박스(그림 6), 닥터지바고의 털모자 등 다양한 모자가 유행하였으며, 특히 스포츠의 영향으로 모자가 상의에 붙어 있는 간편한 후드(hood)가 등장했다.²⁴⁾

70년대에는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리는 헤어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자 여전히 모자를 멀리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소니아 리켈(Sonia Rykiel)을 선두로 토탈패션의 비중을 모자에 많이 두기 시작했다. 특히 니트 모자(그림 7)를 많이 선보여 젊은이들의 취향을 반영하였다. 장년층에게 인기가 있었던 부딕 브랜드 비바의 완전히 머리를 감싸는 소프트한 모자도 70년대 후반 로맨틱 룩으로 이어졌다.²⁵⁾ 히피풍의 유행으로 전원풍 스타일에 시퀀(sequin)과 패치워크(patch work)을 한 후드나 손수건으로 머리를 감싸는 스타일과 팝 가수들을 모방한 형태, 애플리케를 한 펠트모자 등은 외관상 입체 형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중년여성들은 전형적인 햇형의 모자를 선호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클로셰와 슬라우치(slouch)였다.

80년대 다양화 패션 트렌드에서 액세서리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모자, 가방 등의 단독 컬렉션이 시작되었다.²⁶⁾ 이 시기의 모자 디자이너인 밀리너리(Millinery)들에 의해 창조된 예술적인 모자는 기존의 크라운과 브림의 형태, 재료, 방법, 장식등의 고정관념을 벗어난 창의적인 시도의 모자들이 선보여졌다. 이 시기 패션 리더였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그림 8)는 모자를 즐겨쓰며 로맨틱한 스타일을 리드했다. 스테판 존스(Stephen Jones)와 데이비드 실링(David Shilling)이²⁷⁾ 모자 패션계를 주도하면서 샤넬(chanel),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장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 파코라반(Paco Rabanne), 라쿠르와(Lacroix) 등 당대 최고의 의상디자이너의 쇼에 모자를 제작했다.

예전과 달리 젊은층들도 모자를 방한과 차광 외에 패션의 용도로써 찾기 시작했다.²⁸⁾ 특히 자외선으로부터의 안면보호와 스포츠 룩의 영향으로 단순하고 가볍고, 저렴한 캡 형의 모자가 선호되었다. 고가의 모자들도 활기를 찾으면서 80년대 중반부터

일반인들의 모자의 판매도 매년 15% 씩 증가했다.²⁹⁾

90년대 탑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 수공예의 전통을 이어받은 액세서리들이 등장하면서, 1990년대 내내 최고의 패션 뉴스로 장식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모자 디자이너로는 기존 소재의 한계를 넘어 대담한 색채, 다양한 선과 형으로 입체적인 울동미와 초현실적인 특징으로 샤넬의 모자를 10년 이상 제작해 온 필립 트리시(Philip Treacy, 작품사진 그림 9)와 모던하면서 예술적 섬세함으로 주로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의 모자제작을 하는 다이 리스(Dai Rees 작품사진 그림 10)가 있다. 또한 모자 조형성 파괴로 명성있는 레이첼 트레버 모건(Rachel Trevor-Morgan)과 레이첼 스킨너(Rachel Skinner)는 칼 라거펠트, 존 갈리아노, 발렌티노(Valentino), 알렉산더 맥퀸, 베르사체(Versace), 지방시 등의 쇼에 모자를 제작³⁰⁾하였다. 조 고든(Jo Godon 작품사진 그림 11)은 후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폼데 가르송,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티에리 뮈글러(Thierry Mugler) 등의 컬렉션을 위해 디자인하고 있다.³¹⁾ 이들은 모두 모자의 독창적인 예술성과 코디네이션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인식시키며 모자 착용에 활기를 불어넣은 밀리너리들이라 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의례용 모자는 여전히 입체형으로 장식이 절제된 미를 추구하였다. 일명 야구 모자는 남녀 젊은이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모자로 일상적으로 착용되었는데, 특히 힙합 패션의 영향으로 상표를 부착한 채 거꾸로 쓰는 것이 유행하기도 했다.³²⁾

캐주얼 복장에는 스웨이드, 펠트, 벨벳으로 만든 베레, 터번, 텀등의 평면형태가 인기를 끌었다.

일상생활에서 모자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자 보관이 편리하고, 가볍고, 실용적인 소재의 저렴한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젊은이들은 모자 착용에 즐거움을 느끼게 되면서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하였고, 스포츠에서는 필수품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대중매체들은 모자 이미지의 힘을 인식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자 착용을 자주 등장시켜³³⁾ 최대효과를 올리려고 하였다.

<표 2> 20세기 이후서양 여성 모자의 시대별 조형성

	형태		구성	대표적인 모자		소재&기술	장식	
1900	-브림과 크라운 모두 후반을 갈수록 거대해짐.		입체형	-루실		-펠트, 벨벳, 밀짚	-깃털, 리본, 조화, 모피, 베일 등 1910년경 종류와 스케일의 절정기	
1910	-브림이 급속으로 사라짐. -크라운만 남음.		입체형 혼합형	-터번, 토크, 베레, 클로셰			-깃털, 진주, 보석, 조화, 앰블럼 등 작고 약화되어감	
1920	-브림이 살아남 -브림이 위로 들려짐 -크라운 둘레가 여유 있음		입체형	-클로셰 -해변에서는 피쳐햇 보편화				
1930	-초반에는 크라운이 납작하다가 후반에는 각이지거나 뽀족해짐 -브림의 다양한 변화 시도하다가 후반기는 브림이 급격축소		입체형	-브르통, 보우터, 베레, 티놀리안			-꽃, 깃털, 리본, 드레이퍼리	
1940	-브림이 좁거나 거의 없는 형태 -의례용으로 상류층만 브림 있는 형태 착용 -전쟁 중 DIY 모자로 새로운 모자 선보임		입체형, 혼합형	-스카프, 터번, 베레, 보우터, 브르통, 본넷		-다양한 재괄 용품사용: 헌 옷, 냅킨, 리본, 짚, 고무, 신문지 등	-상류층: 깃털 -중류층: 베일, 꽃, 리본 등이 약화됨 -점차 장식 사라짐	
1950	-다양한 모자 형태 등장. -자유로운 브림의 변화 공존 -크라운은 앞 정수리 쪽이 실제 머리 모양보다 부풀려진 형태		입체형	-콜리, 클로셰, 피쳐햇, 보터, 베레			-장식이 거의 사라짐	
1960	예술적인 모자	일반적인 모자	입체형, 혼합형 자유형 평면형	예술적인 모자	일반적인 모자		예술적인 모자	일반적인 모자
	-브림의 폭이 좁은 공식용 모자 -밀리너리 활동 시작으로 다양한 조형의 모자 선보임	-남녀의 모자가 캐주얼의 트렌드로 혼용 -스포츠 영향으로 간소해짐		-클로셰, 브르통, 본넷, 스카프	-후드, 캡형, 손수건, 스카프		-형태, 소재, 장식,의 구분이 모호	-털, 리본, 꽃의 크기와 모양의 약화
1970	-밀리너리들의 독창적인 창의력에 의한 이제껏 없었던 조형으로 전개	-브림 최소화되거나 사라짐		-클로셰, 슬라우치, -다양한 조형성을 지닌 모자들...	-터번, 손수건, -니트 제작 많아짐 -스웨이드, 벨벳, 펠트 등 여러가지 천 사용		-자수, 패치, 퀘일, 시퀸, 아플리케, 레이스 등으로	
1980 ~ 2005	-형, 소재, 장식의 구별이 모호해짐 -밀리너리 이름의 부각	-브림이 최소화된 형태 선호	-자유형, 입체형, 혼합형, 평면형 공존하나 평면형 우세		-캡형 선호 -터번, 베레, 야구모자, 병거지..	-자외선 차단 기능 소재를 부림에 사용		-작고, 평면적이고, 정교해지면서 작아짐 -상표가 장식화

20세기 이후 서양 모자의 조형성은 위의 <표 2>로 요약된다.

(2) 우리나라 모자의 사적고찰

구한말 시기 개화의 흐름을 타고 여성교육의 확대대로 여성들의 의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



(그림 11)
〈보고코리아〉,
98/2, p. 115.



(그림 12)
〈한국여성양장 변천사〉,
p. 131.



(그림 13)
〈한국여성양장 변천사〉,
p. 132.



(그림 14)
〈한국여성양장 변천사〉,
p. 138.



(그림 15)
〈한국여성양장 변천사〉,
p. 257.

참여의 밑거름이 되었다.

1899년 초대 독립신문 사장의 부인 윤고려(그림 12), 1906년 미국 공관장의 부인 고 순영, 1910년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하란사, 이 세 여인은 양장 차림에 풍파두루 헤어스타일과 카플린(capeline) 형태의 큰 모자를 쓴 최초의 한국여성으로 장안의 화제였다. 이 큰 모자는 서구의 당시 유행하던 루실을 모방한 듯 보여, 리본과 깃털, 조화로 장식되었으며, 미국에서 의사공부를 한 박 에스더는 양장에 카노티에(canotier)를 쓴 모습으로 귀국하였고, 평상시는 보우터를 착용한 모습(그림 13)으로 자주 눈에 띄었다.³⁴⁾

신여성들이 모자와 양산을 함께 쓴 반면 저명인사 부인들은 우산을 들고 다녔고, 일반여성들은 쓰개치마, 장옷, 조바위, 남바위를 즐겨 썼다.³⁵⁾

1907년 양장교복을 처음 착용한 숙명여학교는 양장에 밀짚모자나 본넷을 착용하였다. 그 후 일제 침략기 동안 양장 교복에 학교상징의 교모를 착용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양장모가 낯설지 않게 되었다. 1907년 직업여성 중 간호원과 간호학생들도 필박스 형태(그림 14)의 흰색모자와 드레스형의 흰색 양장제복을 입은 것을 비롯하여 각종 직업의 유니폼에 모자를 함께 착용하기 시작했다. 1910년 전후 각 여학교에서 쓰개치마의 착용을 금하자 쓰개치마를 어깨 길이로 잘라 사용하다가, 검정 우산을 쓰고 다녔는데, 이는 곧 유행이 되어 혼수 품목까지 되었지만, 당시의 우산은 비와는 관계없는 내의용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20년대 사회 운동가 강향란을 효시로 1922년 김활란, 1929년 최승희 등등 단발의 유행을 몰고 와 단정한 클로셰 모자까지 유행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 클로셰는 덕혜옹주가 처음 쓰기 시작한 것으로 지식여성들 사이에 유행했다.³⁶⁾

30년대는 양장모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 원인은 간편한 단발과 퍼머 헤어스타일이 모자 착용에 적합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가장 사랑 받았던 모자는 초반의 클로셰와 후반의 카플린이었고, 장식은 약화되고 단순해 졌다.³⁷⁾

40년 전후 지식층 여성들은 부림이 넓은 카플린 모자를 썼으나 점차 브림이 없는 베레로 유행이 전이되었다. 광복이후 1946년 여자 경찰이 발족되어 스커트 양장에 소프트한 브르통 모자(그림 15)를 착용하게 되었고, 세계 2차 대전 시기부터 양장모는 자취를 감추고 머릿수건이 모자역할을 하게³⁸⁾ 되었다.

50년대 이후 실생활에서 모자의 착용은 점차 사라졌지만, 모자 대용품으로 사각스카프를 대각선으로 접어 머릿수건처럼 안면을 둘러싸는 형태가 유행했다.(그림 16)

이제까지 한국에서 착용되었던 모자는 거의 외국산에 의존하는 실정이었으나 일제 말기 한국인이 개설한 '대도 모자'점은 1955년도에 여성모자도 취급하면서 니트로 된 토크, 모직과 펠트로 된 베레, 터번, 클로셰, 카플린 등 다양한 형태의 모자를 제작하여 연예인과 유학생 등 일부층³⁹⁾이 애용하였다.

<표 3> 20세기 이후 우리나라 여성 모자의 시대별 조형성

	형태		구성	대표적인 모자		소재&기술		장식	
	신여성	일반여성		신여성	일반여성	신여성	일반여성	신여성	일반여성
1900	-크라उन과 브림이 큼.	-부림이 없으며, 뒷목 부분부터 앞이마, 귀, 볼까지 가려져 피복면적이 넓음. -목 윗 부분 덮개형을 이룸	평면형 입체형	카노티에	-조바위, 남바위, 쓰개치마, 장옷 등 전통 모자	-펠트와 옷과 같은 소재	-조화, 리본, 깃털, 레이스	-자수, 금박, 은박, 테슬, 스트링..	
1910	-브림 폭이 넓은 것에서 후반으로 갈수록 좁아짐. -부풀려진 크라운이 가라 앉으면서 머리에 꼭끼게 됨.	-서양모 보다 많은 피복 면적을 원함. -교복과 유니폼에 모자 착용으로 다양한 조형 모습	평면형 입체형	보우터, 카노티에, 카플린	-모자대용으로 검정우산 -삿갓, 흰수건 -전통모자 사라짐	"		-신분을 나타내는 마크	
1920	-브림이 좁아지고 크라운은 둥글어짐	-거대한 천으로 둘러싸는 형	평면형 입체형	-클로셰	-술, 스카프	"			
1930	-다양해진 서양모자의 조형 혼재 -스포츠의 영향으로 운동모 유행 -의례용으로는 점차 브림이 넓어짐		입체형	-브르통, 배레, 티놀리안 -클로셰에서 후반에는 카플린으로 옮겨감.	"		-약화되고 단순		
1940	-브림이 사라짐		혼합형 평면형	-베레, 머릿수건			-거의 사라짐		
1950	-일부층만 서양모 이용, 다양한 조형 이루나 대중화 이루지 못함 -해수욕장에서는 브림이 큰 모자 고착 -스카프의 다양한 연출로 모자 대용		입체형 평면형	-베레, 카플린, 스카프			"		
1960 ~ 1970	-브림 없이 크라운만 남음 -중년 여성 스카프 애용		혼합형, 평면형	-베레, 스카프, 병거지형	-니트, 저지 등 여러가지 소재 사용		"		
1980 ~ 2005	-캐주얼의 강세로 브림이 사라짐. -크라उन을 착용자 머리 모양이 그대로 드러나는 형태.		입체형, 혼합형, 평면형 공존하나 평면형 압도적 우세	-베레, 손수건, 스카프, 터번, 캡형	"		-상표와 로고		

60년대에서부터 액세서리 종류가 다양해지고, 헤어스타일 기술도 발전하면서 모자는 점차 잊혀지는 품목이었으나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서 병거지, 니트 모자 등 평면적인 캐주얼한 종류의 모자⁴⁰⁾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80년대 후반부터 해외 패션 컬렉션에 진출하여 한국

패션의 유행경향도 서구와 동시에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모자, 신발, 가방 등에 의한 패션 연출의 중요성을 인식⁴¹⁾케 하였다.

1990년에 서울패션아티스트 협회(SFAA)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서 중앙디자인그룹(JDG), 뉴웨이브인 서울(NWS) 등의 패션그룹들이 정기적인 쇼를

해오고 있다. 해외컬렉션에서 모자가 대담한 조형성을 지닌데 반해 서울컬렉션에서의 모자는 작고, 장식적이지 않아, 옷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모자가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아이টে็ม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부터 모자 마니아(mania)들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모자 공방형식의 가게들이 대학가와 대서관 앞거리 등에 하나, 둘씩 생겨나면서부터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얼굴이 커서 모자를 기피해왔으나 신세대들의 서구화된 체형과 자유분방한 수용 풍토에 따라 모자를 친숙하게 여기면서 패션의 필수품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⁴²⁾

젊은 층은 캐주얼하며 관리가 편리한 간소한 형태와 자외선 차단 기능의 모자를 즐겨 찾고 있으며, 90년대 잡지들에서 여름이면 모자와 선글라스, 겨울에는 모자, 목도리, 장갑들에 대한 특집 기사들로부터 유행계절을 타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장식의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 보다는 기능적인 용도에 더 가깝게 이해되고 있다.

20세기 이후 한국 여성 모자의 조형성은 다음과 같이 <표 3>로 요약된다.

Ⅲ, 1990년대 이후 서양과 우리나라의 여성 모자의 조형성 비교 고찰

앞서 살펴 본 사적 고찰과 조형적 특성을 근거하

여 서양과 한국의 여성 모자의 조형성을 비교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형태 및 구성

서양의 모자는 서양 복식의 구성법과 마찬가지로 입체적인 형태가 기본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세기 초반 잠시 동안 혼합형과 평면형의 모자인 터번과, 스카프가 모자의 역할을 대신하는 평면형의 구성을 제외하면 20세기 전반기는 입체형이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60년대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모자의 착용은 줄어들었지만, 부인의 의례용으로는 입체형이, 젊은층에서는 캐주얼용으로 혼합형과 평면형의 등장이 빈번하기 시작했다.

1980대부터 패션쇼에서 밀리너리들에 의한 창의적인 자유형 모자(그림 17, 18, 19)가 각종 패션쇼에 등장하면서 과감하고 독창적인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서양의 하이패션 그룹에서는 자유형이 증가(13%)하고 있으며, 평면형(35%)이 우세하기는 하나 입체형(29%), 혼합형(22%), 평면형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패션 그룹의 경우 입체형(38%)이 약간 우세한 가운데 만다린, 텡, 베레, 병거지(그림 20) 등의 혼합형(28%)과 평면형(33%)의 모자들이 비교적 고른 선호를 나타냈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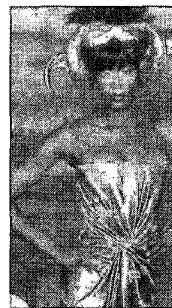
(그림 16)
<한국여성양장 변천사>, p. 259.



(그림 17) <HAT>, p. 206.



(그림 18) Alexander McQueen, 98 SS, <Collections>



(그림 19) Alexander McQueen, 97 SS, <Collezioni>



(그림 20)
<보그코리아>, 99 POLO광고



(그림 21)
〈보그코리아〉, 99, 6
p. 243.



(그림 22) 이경원 97
SS, 〈보그코리아〉,
97, 2, p. 142.



(그림 23) 이은정,
0405
FWwww.ejlee.co.kr



(그림 24),
Anna Sui 97FW,
〈Collections〉



(그림 25)
Moschino 0304 FW,
〈Collections〉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모자는 전통적으로 평면형이며, 대부분 서양모자가 귀 윗부분만을 가리는 것에 비해 뒷목 부분부터 앞이며, 귀, 볼까지 가려지는 넓은 피복면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여성들의 의례용 모자는 서양과 동일한 입체형이었으나, 교복을 비롯한 직업에 따른 유니폼에 착용한 대중패션의 모자는 구성상 의도적인 입체형이었더라도 심지어 등의 부자재와 기술부족으로 소프트한 형태로 나타나 혼합형과 평면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25전쟁 이후 평면의 옷감을 이용한 스카프(그림 16)는 전통적인 쓰개치마와 같은 의미로 대중에게 쉽게 수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정기적인 하이패션 패션쇼에 모자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자유형의 모자(2%)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입체형(17%)과 혼합형(23%)보다 터번, 텀, 베레, 병거지 등의 평면형(58% 그림22,23)이 압도적인 대세를 이루었다. 대중패션의 모자 또한 입체형(23%), 혼합형(32%), 평면형(45%)으로 나타나, 대중패션 그룹과 하이패션 그룹 모두 평면형이 많이 나타났다.(<표 4> 참조)

위에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입체형 모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서양에서는 입체형 모자가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형태였다.

서양과 우리나라의 모자 형태 빈도율을 다음의 <표 4>로 정리하였다.

2, 소재와 기술

서양은 입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하드한 소재를 주로 사용했으나 우리나라는 평면형에 적합하도록 옷과 동일한 소프트한 소재를 사용해 왔다.

서양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소재와 기술면에서 공통적으로 펠트와 모직이 모자의 주 소재로 사용되어왔으며, 여름에는 짙과 짙의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 소재들이 애용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니트 모자가 성행하게 되어 부림을 축소하거나 제거하고, 입체형에서 혼합형과 평면형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 변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80년대 이후 서양의 패션쇼에서 사용되는 소재는 나무, 새 한 마리(그림 24), 새 둥지, 새 장 전체 등

<표 4> 1990년대 이후 서양과 우리나라의 모자 형태의 빈도율

	입체형	혼합형	평면형	자유형	총 자료수
한국 일반	35(23%)	49(32%)	68(45%)	-	152
서양 일반	45(38%)	33(28%)	39(35%)	-	117
한국 패션쇼	41(17%)	54(23%)	138(58%)	4(2%)	237
서양 패션쇼	408(29%)	304(22%)	477(35%)	180(13%)	1369

의 자연재료와 머리카락, 알루미늄, 가죽, 유리, 거즈, 망사(그림 25), 플라스틱, 종이 등의 유연성, 강도, 탄성을 탈피한 재료들을 과감히 사용하여 재료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서양과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의 모자 소재는 공통적으로 계절의 특성에 따른 실용기능성을 유념하여 여름에는 밀짚, 얇은 옷감, 자외선 차단 소재로, 겨울에는 털실을 포함한 털, 모직류, 가죽 소재가 주를 이루었지만 니트로 제작 될 경우와 평면형의 경우는 넷(net)부터 종이 등의 다양한 섬유 재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3) 장식

20세기 초기 서양에서 사용된 모자의 장식들은 깃털, 꽃, 리본, 모피 등의 입체적이고 거대한 볼륨을 유도하여 부피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다. 특히 깃털은 신분 상징의 기준으로 생각되었으므로⁴³⁾ 경쟁적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다.

형태가 단순해지면서 구슬, 보석, 진주, 작은 깃털 등으로 규모가 축소된 정교한 장식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장식은 축소되고 약화되었다.

1980년대 이후 밀리너리에 의한 장식은 기존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초월해 나무, 철사, 강철, 머리카락 등이 형태의 구속 없이 다양한 조형성을 이루면서 장식과 형태와 소재의 구별이 모호해져 조형성의 무한함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일반인들의 모자 장식은 작아지거나 사라졌지만,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식들은 자수, 패치워크, 애플리케이션, 뱃지(badge), 상표 로고 등 작고, 정교하며 평면적인 형태로 앞 정수리 주변에 장식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모자에는 특별한 장식이 없이 자수나 금박, 은박으로 날염의 효과로써 장식을 대신 해 왔다. 교복이나 유니폼에는 상징적인 마크만이 장식의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나라의 모자 장식은 광복 이후부터 거의 사라졌지만, 단지 야구 모자에만 상표 로고가 크게 장식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패션쇼나 일반인들의 모자에 대부분 장식이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장식이 약화된 서양에 비해

우리나라 모자 장식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이후 서양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모자의 사적 고찰을 통해 조형성을 고찰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모자 디자인 연구에 기초 자료로 제공되기 위함이다. 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자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실용기능성, 계급상징성, 장식성으로 요약되며, 20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차광, 보온의 실용기능성과 자외선 차단이라는 환경적인 기능이 첨가되어 기능성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계급상징성은 점차 약화, 축소되어가는 반면, 개인의개성 표현인 장식성의 의미는 점차 증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모자의 조형적 특성은 형태 및 구성과 소재 및 기술, 그리고 장식으로 요약되었다.

셋째 20세기 이후 서양모자의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20세기 전반기 모자의 형태는 입체형이 우세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혼합형과 평면형이 빈번히 등장하면서 3가지 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고, 밀리너리들의 모자는 자유형이 증가 추세에 있었다. 20세기 전반기의 모자의 주 소재는 펠트였으나 1970년 전후 니트 제작 방식과 평면형 모자가 선호된 후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었다. 장식은 리본, 꽃, 깃털이 기본 장식이며, 20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약화되고 단순해졌다.

넷째, 20세기 이후 우리나라 모자의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모자는 기본적으로 평면형이었으나 잠시 서양 문물의 유입으로 잠시 입체형이 새로운 유행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입체형 보다는 평면형이나 혼합형이 대중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소재는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다양한 옷감, 니트, 저지, 짚, 가죽, 털 등으로 제작되었고, 장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1990년대 이후 서양과 우리나라의 모자의 공통점은 개성을 표현하는 호소력이 있는 아이

템으로 대중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평면형이나 혼합형이 점차 선호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의상의 컨셉으로 볼 때 의례용으로 착용된 모자는 입체형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체형은 브림이 다양한 반면, 혼합형은 브림이 작고 좁았으며, 평면형에는 거의 브림이 나타나지 않았다. 소재의 사용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었으며, 장식은 약화되고 단순해졌다.

여섯째, 1990년대 이후 서양과 우리나라의 모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서양의 하이패션 패션쇼에서는 자유형이 증가하고 있으며, 평면형이 우세한 가운데 입체형과 혼합형, 평면형이 고르게 나타났고, 대중패션 그룹의 모자는 입체형이 우세한 가운데 혼합형, 평면형과 함께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모자 유행경향의 형태를 살펴보면 자유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체형과 혼합형보다 평면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 하이패션 그룹이나 대중패션 그룹의 모자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 이후에도 모자 착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적인 이미지의 모자 디자인에 대한 조형성 연구에 도움이 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1) Colin McDOWELL, RIZZOLI (1992). *HATS*, NEW YORK, p. 7.
- 2) 이기문 감수 (2003). *동아 새 국어사전*. (주) 두산동아, p. 818.
- 3) 슈프림 영화사전 (2005). 민중서림, p. 1100.
- 4) Colin McDOWELL, RIZZOLI, *op. cit.*, p. 7.
- 5) 16세기 시종들이 처음 쓰기 시작했으며, 여성들이 집안에서 자주 착용한 모자이고, 스포츠용으로 19세기에 신사들이 착용하기 시작했다.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1998). *Fairchild's Dictionary of Fashion*. Fairchild Books New York, p. 85.
- 6)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p. 462.
- 7) Diana Crane (1933).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ondon, p. 26.
- 8) The Pepin Press (1998). *HATS*, Costume & Fashion

Press New York에서는 모자를 크라운과 브림이라는 기본적인 틀로 보면서 이것의 변형들로서 조형적인 형태를 사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Alan Couldridge(1980). *The Hat Book*, Batsford에서는 소재와 형태로 모자의 조형적 특성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Colin McDOWELL, RIZZOLI (1992)은 *Status, style and Glamour*라는 부제를 사용하여 모자의 기능과 역할을 예술적인 측면의 견지에서 조형성을 전개하였다. Campione, Adele (1994). *Women's Hats*, Chronicle Books에서는 여성 모자를 형태와 색, 장식이라는 틀로 조형성을 바라보았고, Shields, Jody(1991). *Hats*, Clarkson Potter에서는 작가별의 조형적 특징으로 분류, 설명하였다.

- 9) 일반적인 크라운과 브림의 기본적인 조형에 따라 크라운만 있는 형, 브림만 있는 형, 피복 면적에 따른 형, 크라운의 형태에 따른 형, 브림이 폭에 따른 형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크라운만 있는 모자는 필박스, 토크, 베레, 코삭(cossack), 페즈(fez), 만다린, 헬멧(helmet) 등이 있고, 브림만 있는 스컬캡과 피복면적이 넓어 뒷목부분부터 정수리까지 덮는 것으로는 보닛, 후드가 있다.
크라운 형에 따라 둥근 것에는 클로셰, 슬라우치, 머쉬룸, 카트휠, 토크 만다린 등이 있고, 뾰족한 모양으로는 콜리, 티놀리안 등이 있으며, 납작한 형에는 필박스, 페즈, 코삭, 파나마, 보우티 등이 있다.
브림의 폭과 꺾임에 따라 폭이 좁은 모자로는 클로셰, 슬라우치, 보우티(boater), 자키 등이 있고, 브림의 폭이 넓은 모자에는 픽처햇, 카플린, 카노티에, 카트휠(cart wheel), 머쉬룸(mushroom) 등이 있으며, 극단적으로 브림이 넓은 것은 브리머 캡(brimmer cap)이라고, 브림이 꺾어진 것으로는 브르통, 카우보이(cowboy), 파나마(panama) 등이 있는데 브르통은 브림 전체가, 카우보이는 양옆이 말려 올라가고, 파나마는 뒤가 위로 꺾여 있다.
- 10) Colin McDOWELL, RIZZOLI (1992). *op. cit.*, p. 7.
- 11) 보그 코리아, 1997년, 4월, p138
- 12) 브리태니커 세계백과 사전, 제 17권, 서울: 한국브리태니커, 1994, p. 628.
- 13) 보그 코리아 (1997). *op. cit.*, p. 138.
- 14) Diana Crane (1933). *op. cit.*, pp. 102~104.
- 15) Colin McDOWELL, RIZZOLI, *op. cit.*, p. 220.
- 16) J, Anderson Black & Madge Garland 윤길순 옮김 (1997). *A HISTORY OF FASHION*, 자작 아카데미 pp. 198~199.
- 17) Valerie Mendes & Amy de la Haye (1999). *20th-Century Fashion*, Thames & Hudson Ltd, London
김정은 역 (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p. 96, p. 112.
금기숙 외 (2002). 현대패션 1900~2000. 교문사, p. 124.
- 18) 김정은 역(2003). *Ibid.*, p. 98.
- 19) *FASHION THEORY*, Vol.1. (1997. 3). Berg Publishers, UK, pp. 49~50.
- 20) 윤길순 옮김 (1997). *op. cit.*, pp. 203~205.
파리의 디자이너들은 독일지도총 부인들의 옷을 짧은 치마에 거대한 모자를 쓰도록 하여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기도 했다. 종종 모델들에 의해 커다란 모자가 등장했을 지라도 일반여성들에게는 베레

- 와 터번, 스카프가 일반적인 머리장식이였다.
- 21) 이주연 (1994). 20세기 헤어스타일의 변천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4.
 - 22) 정임숙 (2002). 20세기 서구여성의 헤어스타일과 복식 변천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5.
 - 23) Colin McDOWELL, RIZZOLI, *op. cit.*, p. 221.
 - 24) 김정은 역 (2003). *op. cit.*, pp. 201~203.
 - 25) Colin McDOWELL, RIZZOLI (1992). *op. cit.*, p. 221.
 - 26) 금기숙 외 (2002). *op. cit.*, p. 275.
 - 27) 문주향 (2003). 여성모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2.
 - 28) 김영인 외 (2001). *op. cit.*, p. 133.
 - 29) 문주향 (2003). *op. cit.*, p. 52.
 - 30) 김정은 역 (2003). *op. cit.*, pp. 292~295; 이주연(1994). *op. cit.*, p. 55.
 - 31) 보그 코리아, 1998년 2월, p115
 - 32) 금기숙 외 (2002). *op. cit.*, p. 305.
 - 33) 문주향 (2003). *op. cit.*, p. 55.
 - 34) 유수경 (1991).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 133, p. 160.
 - 35) 금기숙 외 (2002). *op. cit.*, pp. 86~88.
 - 36) 유수경 (1991). *op. cit.*, pp. 187~191.
특히 단발과 클로셰를 함께 착용한 신여성을 모단 걸 (毛斷 modern girl)이라고 부르는 신용어도 등장했다.
 - 37) *Ibid.*, pp. 237~238.
 - 38) *Ibid.*, p. 238.
 - 39) *Ibid.*, p. 307.
 - 40) 전완길 외 (1995). 한국 생활문화 100년. 장원, p. 135.
 - 41) *Ibid.*, p. 100, p. 209.
 - 42) 문화일보 2003년 10월 2일 목요일 자
 - 43) 김정은 역 (2003). *op. cit.*, p. 33.